

바다무지개

2016년 9월호



음력
8월 15일
추석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보기 드물게 사시사철 절기마다 독특한 풍속을 형성하였다. 절기의 풍속을 형성하고 후대에 전하며, 그 과정에서 대동단결하고 정서적 순화를 꾀하는 슬기와 지혜를 함께 익혔다고 할 수 있다. 3대 명절인 설, 단오, 추석에도 이 시기에 맞는 다양한 풍속이 아직까지 전해 오고 있다.

추석의 유래

추석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의 '조춘일 추석월(早春日 秋夕月)'에서 나왔다. 중추절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3달로 나누어 8월이 그 가운데 들어서 붙인 이름이다. 한가위, 즉 가윗날의 유래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뉘고 왕녀(王女) 2인이 각부를 통솔하여 무리를 만들고 7월16일부터 길쌈을 하여 8월15일 그 성과를 살펴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놓아 이긴 편을 축하하고 가무(歌舞)와 놀이로 즐겼으며 이를 '가배(嘉俳)'라 하였다. 가배의 어원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8월15일이 우리의 대표적인 만월 명절이기 때문에 붙여졌거나,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일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여겨진다.

추석의 풍속

한가위가 되면 아침저녁으로 기후가 쌀쌀해지므로 사람들은 여름옷에서 가을옷으로 갈아 입는다. 그래서 한가위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하기도 한다. 옛날 머슴을 두고 농사짓는 집에서는 머슴들까지도 한가위에 새 옷을 한 벌씩 해 주었다. 한가위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차례를 지내는 일이다. 차례상은 설과 달리 흰 떡국 대신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 뒤 음복을 하고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데, 한가위에 앞서 미리 갈아놓은 낫으로 벌초를 한다. 한편 지금은 잊혀져 가는 풍속이지만 예전에는 '반기'가 있다. 옛날에는 사방 한 뼘 크기의 목판이 집집마다 수 십 개씩 있었다. 바로 명절 때 반기(음식을 나누는 것)를 하기 위한 '반기나무집시'이다. 집집마다 정성껏 차린 시절음식들을 예쁘게 담아 어린이들이 분주히 오갔다. 이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지점에서 만나 반나절을 함께 회포를 풀고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겼는데 이를 중로상봉(中路相逢), 즉 '반보기'라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국서 미용 봉사·지진피해 지원

게재 일자 : 2016년 08월 23일(火)



2014년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단 이전 이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해 농촌 지원, 해외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부터 울산 중구청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징검다리 봉사활동'에 참가해 분기별로 복지시설 음식 전달과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도 박영범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기부금과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공단본부를 비롯해 전국 24개 소속 기관에서 1사 1촌 농촌기능봉사회를 추진해 농기계 수리와 페인트칠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도 전개해 6300여 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0년 네팔을 시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는 15개국을 대상으로 이·미용 기능봉사와 아동보육시설 지원, 환경개선 활동, 지진 피해 마을 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6월 캄보디아 풍살람초등학교에서 이·미용 봉사, 한복 입어보기 등 활발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오는 28일 경기 안산시 안산호수공원에서 1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행사가 열린다.

캄보디아 해외근로자 송출 1위 비결은?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지사장, "대규모 구인구직 박람회 열어 귀환근로자 재취업과 한국청년일자리기회 만들 것"



▲ 지난 2월 26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교육센터(KEC, 원장 노용준)에서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캄보디아 귀환근로자 구인구직행사 현장.(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해외근로자수는 7,484명이다. 전 세계 송출 국가 중 단연 1위다.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수도 프놈펜 시내에는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대비 학원들만도 이미 수 십여 개다. 저녁시간 학원가 주변은 이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로 가득차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그들 손에 들려진 건 단순한 한국어학습교재가 아니다. 가난한 이 나라 청년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꿈과 희망이란 이름을 가진 기차를 타기 위한 일종의 예약 티켓과도 같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균 경쟁률이 매년 5대 1을 넘기 때문이다. 단순한 운이 아닌 열정과 그 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딸 수 있다. 그래서 프놈펜 학원가 불빛은 오늘도 꺼질 줄 모른다.

며칠 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 지사무소를 찾았다. 금년 6월에 치러질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준비로 벌써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아직 정식공고가 나가진 않았지만, 올해 한국어 능력시험은 6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2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박동준 전 지사장에 이어 새로 부임한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장은 요즘 30도가 넘는 무더운 이 나라 날씨에 적응 중이었다. 그래도 추운 한국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것 같다며 넉살좋게 웃는다. 포근하고 다정다감한 인상이다.



▲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지사장

박 지사장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실하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들의 성실함과 정직성을 높이 샀다. 수년째 전 세계 송출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올해도 예년수준과 비슷한 약 7~8,000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비율이 오르는 추세라고 한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 지사장 역시 바로 그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귀환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구인구직행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캄보디아로 돌아온 귀환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했다. 총 331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그중 173명이 현지진출 한국기업 재취업에 성공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된 점이 다소 아쉽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귀환근로자 초청강연회'를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동시에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예방 및 모범적 현지 정착사례를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장은 금년 목표로 귀국근로자들의 한국기업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들을 돌며 구인처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취업 업무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장은 이를 위해 한인회 등 교민사회 커뮤니티와의 유대강화와 상호협력을 통해 금년 11월 중 수도 프놈펜에서 대규모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공동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로 돌아온 귀환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해외취업을 꿈꾸는 용기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수가 그만큼 줄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이나 일본 등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속만으로는 범법자만 양산할 뿐 결코 바람직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 공단 측에서는 귀환근로자들의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인력송출시스템을 보다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진행중이구요. 아울러 저희는 고국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교민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실제적인 취업관련 정보도 제공해주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저희 공단과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까요.”

카타르, 캄보디아 근로자 3만여명 필요

캄보디아는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서 주최되는 2022년 월드컵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해 33,000명의 이주 노동자 공급을 요청하는 카타르의 제안을 환영했다. 잇 삼행 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프놈펜에서 가진 회의 도중 카타르 노동사회부의 살레 알 사위 행정부장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알 사위는 카타르가 2022년까지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료해야하며 이 작업을 위해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 사위는 카타르의 “근로자 관리”와 “근로자 인권”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잇 삼행 장관은 33,000명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를 허가한 카타르에 감사를 표하며 이는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카타르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캄보디아근로자 수용요청

6월 초 훈센 총리는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 근로자 유입을 수용할 것을 간청했으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 근로자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3일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집 라작 총리에게 더 많은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높은 봉급과 좋은 근무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인신매매 및 국제 테러 예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매체는 나집 라작 총리가 캄보디아 총리의 요청, 특히 국내 가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요청을 방아들었다고 전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 2011년 스스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는 가정부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두 국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아직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 쉐어 노동부 대변인은 MoU는 미래 가정부들이 과거처럼 권력남용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책을 제공할 것이며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3만 명의 캄보디아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 그룹 센트럴의 모은 톨라 사무총장은 총리를 향해 말레이시아 내 학대, 착취, 폭력, 채무 노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더 많은 인력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캄보디아 롱 디망 대사, 천안아산 자국 근로자와 소통



충남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주한 캄보디아 롱 디망 대사가 방문해 자국 근로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롱 디망 대사는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해 천안과 아산지역 200여 명의 자국 근로자들을 만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겪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평일에 캄보디아 대사관을 방문하기 힘든 자국의 근로자들을 위해 대사관 영사서비스도 제공했다.

롱 디망 대사는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고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호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장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역 등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新 코리안드림]파키스탄 무역회사 사장 아쉬라프

자기 친구를 회사에 집어넣기 위해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해 퇴사토록 위협한 20대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붙잡혔다.

11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포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로 A(26·파키스탄)씨와 B(28·파키스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C(3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일 오후 11시쯤 회사 기숙사에서 또 다시 C씨를 폭행했다.

베트남 제조가공업, 아세안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2016..08. 08

-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투자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제조가공업 부문이 각 아세안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아세안 투자자들의 해당 분야 프로젝트 건수는 총 1,176건으로 등록자본금액이 276억 달러를 기록
- 지난 7월 20일 기준 베트남 전체 아세안 지역 투자자들의 프로젝트는 3,040건으로 총 투자금액 644억 달러를 기록함. 7월 한 달간 총 181건의 신규 프로젝트, 79건의 증자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며 전체 투자금액은 24.92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베트남 전체 투자자본의 19,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임.
- 제조가공업 이외 부동산경영(총 등록금액 190억 달러, 29,4% 비중 차지), 이어서, 건설(33.7억 달러, 5,2%),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29억 달러, 4,5% 차지) 분야에 아세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는 싱가포르로 총 1,663건의 프로젝트, 전체 투자금액은 총 381억 달러임. 이어서, 말레이시아 138억 달러, 태국 94억 달러 순임. 최근 싱가포르와 태국 두 국가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이와 같은 아세안 투자자들의 대 베트남 투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 기업은 투자과정에 있어 베트남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베트남-싱가폴 산업공단(VSIP)은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전함.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주요 아세안 투자기업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있는 지역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했으며 향후 극복해야할 점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함.

베트남 8월 관광객 두 자리 수 증가

2016..08. 08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 수 증가함. 8월 베트남을 방문한 관광객 추정 수는 899,738명으로 전월 대비 6,3% 전년 동기대비 24,4% 증가함. 또한 8개월 동안 베트남 방문 총 관광객은 6,452,37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5,4%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지난 1년간 저조한 수치를 보였던 여행객 수가 다시 두 자리 수로 증가했으며 특히 태국을 제치고 한국인 관광객 1순위 여행지로 자리매김함. 8월 관광객 항공이용 수는 5,438,93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8,5% 상승함. 해당 관광객 중 다수는 장기 체류자에 속함.
- 베트남 정부가 비자간편화를 진행한 결과 각 국가별 여행객 홍콩 92,8%, 중국 57,9%, 한국 37,6%, 태국 34,9% 성장을 기록, 뿐만 아니라 서유럽 5개국(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의 경우 두 자리 수 성장세를 기록함. 그 외, 8월 내국인 관광객 또한 4천 3만 명 가까이 급증함.
- 베트남의 전체 관광수입은 265,152십억 VND를 달성하였으며 베트남 관광총국은 2016년 관광객 수 8억 5천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힘.

[출처 :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24 Aug, 2016] ○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교육, 아낌없이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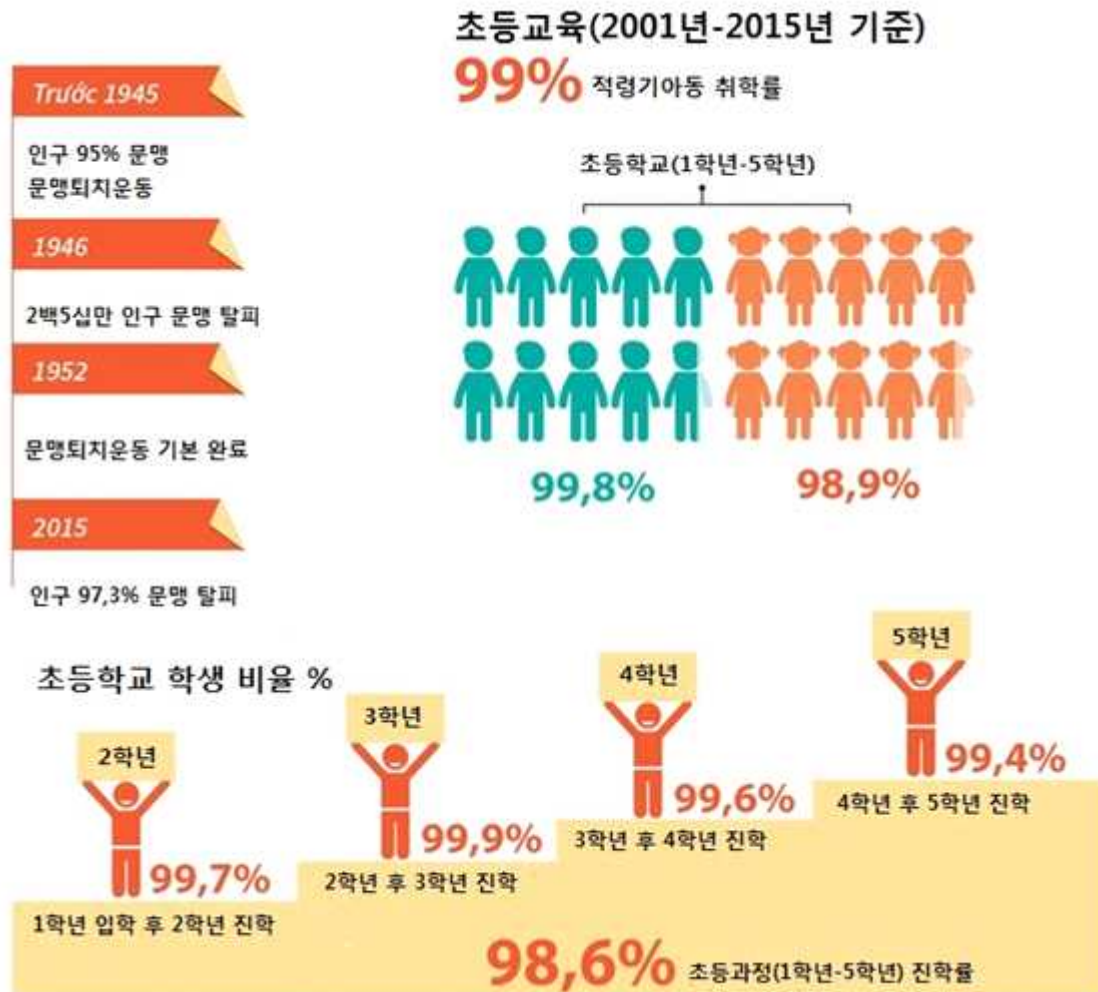
2016..08. 31

- 한국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올해에도 베트남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6년의 첫 7개월간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주요 구매자였음. 그들은 7월에 총 외국주 중 70%를 구매했으며 이는 거래가격 면에서 5천7백만 달러임.
- Korea Investment Securities의 이머징마켓 부서의 윤항진 디렉터는 이 갑작스런 증가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최근에 한국인들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수의 혁신적인 규정들을 제정했다 함.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한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3년간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짐.
- 결과적으로, 한국의 투자자들은 올해 해외시장에서 활발했음. 베트남은 높은 성장가능성, 가치,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성 덕분에 전체시장 중 최고의 선택지가 됨. 윤항진 디렉터는 한국 투자 자본에서 다수의 문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함.
- 한국투자금융협회 회장 황영기는 한국투자자들은 해외시장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베트남의 강한 의지에 감명 받았다고 함. 이는 2015년 12월에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최근의 무역 거래들에서 보여짐.

- 최근 호치민시에서 열린 한국 투자자 회의에서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절차와,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의 직접 투자자와 간접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황영기가 말했음.
-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았음. KINDEX 베트남 VN30 ETF(Synth)라는 명칭의 이 새로운 상장지수펀드는 호치민 증권 거래소(HOSE) 상위30개 주식으로 이루어진 VN30 인덱스에 대한 그날 그날의 성과를 반영함. VN30 인덱스는 2012년 호치민 증권 거래소에 의해 처음 등장했는데, 증권 거래소의 가장 크고 유동적인 주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 KINDEX 베트남 VN30 ETF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00,000-400,000건에 달함. 윤희진 디렉터에 의하면 한 달된(one-month-old) 펀드는 베트남 우량주를 찾고 싶어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함.
- 8월 4째주, 베트남 거대 투자자산관리 회사인 VinaCapital 그룹은 자신들의 투자 상품을 한국에 있는 신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음. VinaCapital은 한국에 있는 신한에 펀드에 대한 투자관리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임.
- 9월 달에 두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주식공개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VIP 주식형 펀드를 내놓을 예정임. 또한 이후에는 보통주, 채권, 부동산등의 다양한 자산을 위한 Multi-asset 펀드도 만들 예정임.

- 서울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VinaCapital의 CEO Don Lam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내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 또한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이끈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신한의 고객들이 베트남과 이 지역 여타 흥미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음.

베트남 문맹퇴치 교육의 '71년'



<베트남 투자기획부, WB, UNICEF, infographics.vn 제공>

- 베트남의 8월 혁명 (Cach Mang Thang Tam, 1945년 8월 19일 하노이 해방) 및 건국 (Quoc Khanh Nuooc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1945년 9월 2일) 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함.

○ 1945년 8월 프랑스 식민당국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실권을 행사하던 일본의 항복을 통해 베트남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1945년 당시 베트남의 문맹은 인구 95%를 차지했음. 이에 호치민 주석은 문맹퇴치운동(Phong trao diet giac dot)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1년 만에 문맹 탈피 인구를 2백5십만 명으로 증가시킴. 이후 1952년 대다수 인구가 문맹퇴치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베트남 독립 70년 만에 인구 97,3%가 문맹에서 벗어남.

○ 현재 베트남의 남아의 초등교육 진학률은 99,8%이며 여아의 경우 98,9%을 기록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학년별 진학률은 1-2학년 99,7%, 2-3학년 99,9%, 3-4학년 99,6%, 4-5학년 99,4%를 기록하며 총 98,6%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베트남의 초등학교는 총 5년 과정으로 나뉘지며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이어짐.

[출처 :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02 Sep, 2016]

베트남을 향한 한국의 투자 물결

2016..09. 01

- 한국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올해에도 베트남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6년의 첫 7개월간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주요 구매자였음. 그들은 7월에 총 외국주 중 70%를 구매했으며 이는 거래가격 면에서 5천7백만 달러임.
- Korea Investment Securities의 이머징마켓 부서의 윤항진 디렉터는 이 갑작스런 증가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최근에 한국인들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수의 혁신적인 규정들을 제정했다 함.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한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3년간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짐.
- 결과적으로, 한국의 투자자들은 올해 해외시장에서 활발했음. 베트남은 높은 성장가능성, 가치,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성 덕분에 전체시장 중 최고의 선택지가 됨. 윤항진 디렉터는 한국 투자 자본에서 다수의 문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함.
- 한국투자금융협회 회장 황영기는 한국투자자들은 해외시장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베트남의 강한 의지에 감명 받았다고 함. 이는 2015년 12월에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최근의 무역 거래들에서 보여짐.

- 최근 호치민시에서 열린 한국 투자자 회의에서 “베트남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절차와, 베트남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의 직접 투자자와 간접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황영기가 말했음.
- 7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았음. KINDEX 베트남 VN30 ETF(Synth)라는 명칭의 이 새로운 상장지수펀드는 호치민 증권 거래소(HOSE) 상위30개 주식으로 이루어진 VN30 인덱스에 대한 그날 그날의 성과를 반영함. VN30 인덱스는 2012년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의해 처음 등장했는데, 증권 거래소의 가장 크고 유동적인 주식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 KINDEX 베트남 VN30 ETF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00,000-400,000건에 달함. 윤항진 디렉터에 의하면 한 달된(one-month-old) 펀드는 베트남 우량주를 찾고 싶어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함.
- 8월 4째주, 베트남 거대 투자자산관리 회사인 VinaCapital 그룹은 자신들의 투자 상품을 한국에 있는 신한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음. VinaCapital은 한국에 있는 신한에 펀드에 대한 투자관리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임.
- 9월 달에 두 기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주식공개회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VIP 주식형 펀드를 내놓을 예정임. 또한 이후에는 보통주, 채권, 부동산등의 다양한 자산을 위한 Multi-asset 펀드도 만들 예정임.
- 서울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VinaCapital의 CEO Don Lam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내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 또한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이끈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신한에 고객들이 베트남과 이 지역 여타 흥미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음.

제47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수여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07일 일요일, 상담실에서 제47회 TOPIK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TOPIK1 : 37명, TOPIK2 : 35명이 응시하였고, 그 중 TOPIK1에는 35명(94.6%)이 합격, TOPIK2에는 8명(22.9%)이 합격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그리고 열심히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퇴근 후에도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온 교육회원들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더욱 높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TOPIK3급 3기 자격취득과정 예비소집교육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07일 일요일, 102호 교육실에서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사업 "TOPIK3급 3기 자격취득과정"의 개강식 및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이유숙 강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근로자 LE VAN AN 등 20명이 수업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부터 실시된 수업은 2016년 11월 13일(15주)까지 매주 일요일 4시간씩 총6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제 5차 베트남 커뮤니티 “진주·사천지역 베트남근로자 귀국지원 설명회



▲행사준비



▲진주사랑의 집 대표 인사말씀



▲VEWMO 소장 자진귀국 등 설명



▲재입국 절차 등 설명(VEWMO)

2016년 8월 7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제 5차 베트남 커뮤니티 “진주·사천지역 베트남근로자 귀국지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진주 소재 소지역센터인 진주사랑의집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베트남근로자 환영 외 29명의 베트남근로자가 함께하였고 진주사랑의 집 대표(박성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장(이명희), 베트남EPS 근로자관리사무소(VEWMO)장(풍광종)이 함께하였습니다.

인사말씀 후에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2016년도 불법체류자 현황, 2016년 5월 17일 자진귀국 불법체류자 재입국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주한베트남 사무소에서 귀국준비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 운전면허교실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 운전면허교실이 매주 실시되며, 8월에는 4회차에서 7회차까지 실시되었습니다.

8월 강의도 마산중부경찰서 보안계 외사정보관(장기동)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4회차에는 기출문제풀이와 교통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차, 6회차에는 실전모의고사를 통해 시험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7회차에는 운전면허시험 접수방법을 알리고, 약 두달여간의 수업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교육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하반기 토요교실 개강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13일 토요일, 다목적 홀 (101호강의실)에서 2016 하반기 토요교실 개강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개강식에는 스리랑카 근로자 프리얀트 등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장(이명희)의 격려 말씀을 시작으로 강사 소개와 토요교실 교육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생들의 얼굴에서는 한국어공부에 대한 열의와 굳은 다짐이 보였습니다.

꾸준히 참석하여 모두가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2016 하반기 한국어, 정보화교실 개강식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8월14일 일요일, 2016 하반기 한국어(오전반, 오후반), 정보화교실(오전반, 오후반) 개강식을 다목적홀(101호강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스리랑카근로자 누완 등 175명 이 참석하였습니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장(이명희)의 격려 말씀을 시작으로 강사소개와 오전, 오후반 각 반의 교육안내가 있었습니다.

교육안내가 끝나고, 교육문화팀장(박남숙)이 준비한 '꿈'을 주제로 짧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동안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꾸준히 참석하여 모두가 소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제27회 무료 이미용 서비스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14일 일요일, 교육실 복도에서 제27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남봉사미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이미용 봉사를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근로자들 대부분이 아주 짧은 스타일을 원하였습니다.

봉사미회 자원봉사자들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춰 정성스럽게 스타일링해주셨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방글라데시근로자 AWLAD 등 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6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사업 제과제빵직종 예비소집 교육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14일 일요일, 경남요리학원에서 2016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사업 제과제빵직종의 예비소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과제빵을 만드는 기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정과 경남요리학원 교장의 교육과정 설명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교육정보를 외국인근로자와 센터, 경남요리학원 모두가 공유하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예비소집 교육에는 베트남 근로자 도당신 등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과제빵직종은 9월 4일 시작하여 11월13일(10주)까지 매주 일요일 6시간씩 총 60시간이 진행됩니다.



2016 귀국의식 함양 교육 실시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14일 일요일,
102호 강의실에서 TOPIK3급
3차 자격취득반을 대상으로 개
강식 및 귀국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귀국의식 함양교육은 창
원외국인력지원센터장(이명희)
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우리나라
의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사례
를 들어 성공적인 귀국에 대해
소개 하였고, 더불어 TOPIK자
격증과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
을 한 번 더 알리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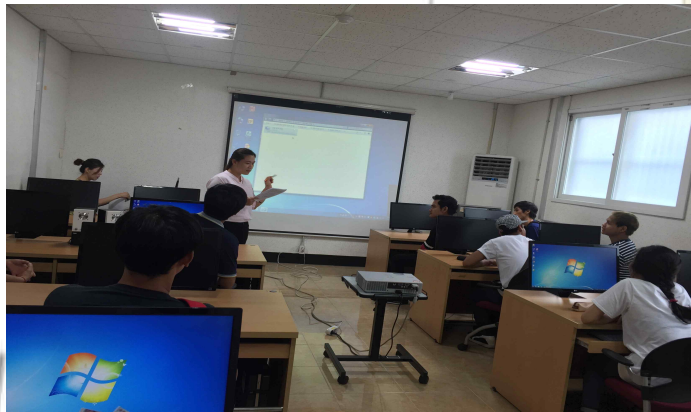
제 7차 HCC Home coming Community

2016년 8월 18일 오후 12시~
오후 1시까지 센터 내 각 지정
교실에서 제 7차 HCC가 실시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근로자 Wahyu wid
odo 외 49명의 외국인근로자
가 참석하여 귀국의식 함양 프
로그램의 일환 중 1년 미만 초
기입국자를 위하여 의식함양교
육을 하였습니다.

제 7회 HCC 주제는 한국사회
와 미래 - 한국의 직업생활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제 8회 HCC는 2016년 09월25
일 일요일 12:00~13:00 실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
립니다.



2016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사업 농기계정비직종 수료식 거행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21일 일요일, 진주시 소재 경남농업기술원에서 2016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사업 농기계정비 직종 수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수료식에 앞서 VIP들이 훈련근로자들과 함께 오찬시간을 가졌고, 식전 간단한 간담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캄보디아근로자 릿 삼반 등 22명이 수료하였고, 캄보디아 근로자 네헤 찬 등 19명이 개근상을, 행시레이 우스 등 5명이 우수 및 모범교육생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장(김양수)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우봉우),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장(김태종)의 인사말씀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에서 그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기념품증정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대신정공에서는 2명의 근로자에게 장학금도 수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교수들에게 교육생들이 직접 감사의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끝으로 교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교육생의 소감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도농기원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 수료

캄보디아·네팔 근로자 20명 총 10회 농기계교육 실시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약 3개월간 추진해 온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이 지난 21일 오후 수료식을 가졌다.

고용노동부가 정상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채우고 귀국을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착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취업, 창업훈련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약 3개월간 추진해 온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이 높은 호응 속에 지난 21일 오후 2시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한 농업기술원의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은 이날 수료식이 있기까지 매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10주간 진행한 기술훈련으로, 출국 후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외국인근로자 20명(캄보디아 18·네팔 2)이 수료증을 받았는데, 이들은 입국한지 3년 이상 된 외국인 근로자들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수요조사와 과제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성실한 외국인근로자들이다.

교육기간동안 트랙터, 콤팩트 등 주요농기계 작동원리와 취급조작방법, 점검정비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경운기, 관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70~8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정비와 운전기술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했다. 이밖에도 농업기계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종별 고장대처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법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농업기계 종합교육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따망 손 바하돌(31·네팔)씨는 "농업기술원이 제공해 준 농업기계교육에 참여하면서 쉬는 날에도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뿌듯했고, 그동안 배운 농업기계 기술을 농업이 주 산업인 조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켄 반 타(27·캄보디아)씨는 "다양한 농업기계를 접해보고 간단한 정비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였기도 해서, 앞으로 한국산 농기계 구입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식에서는 우수 교육생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형 시레이부스(캄보디아)씨, 켄 페아(캄보디아)씨, 따망 손 바하돌(네팔)씨 등 3명의 교육생에게 각각 농업기술원장 상이 수여됐고, 캄보디아 켄 반 타 씨와 란스탈라오(30)씨 등 2명에게는 (주)대신정공 대표이사 상이 수여됐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진주외국인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 수료자 개인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재입국시 주어지는 가점 혜택 등 교육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호응도가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는 2기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밝혔다. 배병일기자

경남농업기술원, 외국인 농업교육생 수료식 가져

5월15일~8월21일 매주 일요일마다 총 10회 농기계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 수료식 모습 (출처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취업,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약3개월간 추진해 온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이 높은 호응 속에 지난 21일 오후 2시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15일부터 시작한 농업기술원의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은 이날 수료식이 있기까지 매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10주간 진행한 기술훈련으로, 출국 후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외국인근로자 20명(캄보디아 18, 네팔 2)이 수료증을 받았는데, 이들은 입국한지 3년 이상 된 외국인 근로자들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수요조사와 과제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성실한 외국인근로자들이다.

교육기간동안 트랙터, 콤파인 등 주요농기계 작동원리와 취급조작방법, 점검정비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경운기, 관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70~8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정비와 운전기술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다. 이밖에도 농업기계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종별 고장 대처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법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농업기계 종합교육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따맘 손 바하돌(31세, 네팔)씨는 "농업기술원이 제공해 준 농업기계교육에 참여하면서 쉬는 날에도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뿌듯했고, 그동안 배운 농업기계 기술을 농업이 주 산업인 조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켄 반 타(27세, 캄보디아)씨는 "다양한 농업기계를 접해보고 간단한 정비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였기도 해서, 앞으로 한국산 농기계 구입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식에서는 우수 교육생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행 시레이부스(캄보디아)씨, 켄 페아(캄보디아)씨, 따맘 손 바하돌(네팔)씨 등 3명의 교육생에게 각각 농업기술원장 상이 수여되었고, 캄보디아 켄 반 타 씨와 란 스랄라오(30세) 씨 등 2명에게는 ㈜대신정공 대표이사 상이 수여되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진주외국인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 수료자 개인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재입국시 주어지는 가점 혜택 등 교육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호응도가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는 2기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밝혔다.

농업기술원, 외국인 농업기계교육 수료식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원에서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을 수료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한 교육은 매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10주간 진행한 기술훈련으로, 출국 후 본국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외국인근로자 20명(캄보디아 18, 네팔 2)이 수료증을 받았는데, 이들은 입국한지 3년 이상 된 외국인 근로자들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수요조사와 과제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들이다.

교육기간동안 트랙터, 콤팩트 등 주요농기계 작동원리와 취급조작방법, 점검정비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경운기, 관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70~8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농업기계를 중심으로 정비와 운전기술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했다. 이밖에도 농업기계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종별 고장 대처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법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농업기계 종합교육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은 따망 손 바하돌(31·네팔)씨는 "농업기술원이 제공해 준 농업기계교육에 참여하면서 쉬는 날에도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뿌듯했고 그동안 배운 농업기계 기술을 농업이 주 산업인 조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켄 반 타(27·캄보디아)씨는 "다양한 농업기계를 접해보고 간단한 정비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였다. 앞으로 한국산 농기계 구입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료식에서는 행 시레이부스(캄보디아)씨, 켄 페아(캄보디아)씨, 따망 손 바하돌(네팔)씨 등 3명의 교육생에게 각각 농업기술원장 상이 수여되었고, 캄보디아 켄 반 타 씨와 란 스랄라오(30) 씨 등 2명에게는 (주)대신정공 대표이사 상이 수여됐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진주외국인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거둔 성과"라며 "교육 수료자 개인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재입국시 주어지는 가점 혜택 등 교육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호응도가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는 2기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원에서 '외국인근로자 농업기계교육'을 수료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한 교육은 매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10주간 진행한 기술훈련이 진행됐다./사진=경상남도농업기술원

8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8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결과

국가	비자	상담유형
파키스탄	E-9	산재보험
중국	E-9	임금체불 진정
중국	H-2	임금체불
3건		

2016년 8월 28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변호사 황현종과 함께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1층 상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인원은 파키스탄근로자 외 2명으로 산재보험 관련 문의, 임금 체불 등에 관련된 문의와 그에 대한 답변과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무료법률 상담이 새로 개설되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6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참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08월 28일 일요일, 안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16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야하는 일정이었기에 이른 아침부터 센터를 찾은 근로자들은 버스안에서 조식을 먹으며 안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기까지 5시간이 소요되는 먼 길이었습니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지친기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곧 무대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우즈베키스탄근로자들의 전통의상 퍼레이드와 캄보디아근로자들의 K-POP 경연에 출전하였습니다.

참가한 모두가 즐기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도착하기까지 아무사고없이 안전하게 복귀하게 되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날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직원 및 각 국가 대표로 선정된 근로자 9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정말 멋지고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김인식 이사장, 비엔티엔주, 새마을사업현장 방문

출처 :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 페이스북



우간다, KOREA AID 사업

출처 : 외교부 페이스북 페이지

(KOICA 우간다사무소 페이스 북 공유)



SBS 희망TV, C4D 프로그램
탄자니아 잔지바르미디어 교육센터 운영위원 연수



CTS 2기
공모설명회 개최

코리아에이드 3화 이민구

코리아에이드?
한국이 도와준다고?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아들랄라 마을은 도심과 거리가 멀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잖아요,



병원은 무슨.. 돈도
비싸고 갈 엄두가
안 나지.

힘들지.
워낙 시골이라..



난 우리애기가 잘 있나 걱정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빨리
다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딸..



네, 여러분들이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랄라 마을로 한국의 의료지원 차량이 직접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지원 서비스가 바로 코리아 에이드 입니다.



보건차량이 마을로 와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럼 병원이 우리 마을로 찾아오는 셈이네~.







일 자리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지역사회에는 변화의 씨앗을,

“인도네시아 찰레곤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자립역량강화 사업”

글·사진 : 김수진 (혁신파트너십사업팀 대리)

섭씨 35도씨.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연신 흐르는 인도네시아의 태양아래 오늘도 KP. Social Enterprise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과 안전모, 안전화를 신은 청년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장에는 스크랩과 목재 그리고 각종 재활용 용품들이 작은 동산처럼 쌓여 있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법한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닦아가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칠 만도 한데 이 글거리는 저 태양보다 더 뜨겁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는 청년들의 눈빛이 느껴진다.



[사진 : 작업중인 청년들]

신흥 공업도시 찰레곤, 일자리는 많지만 지역 청년들이 설 곳은 없어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끝에 위치한 찰레곤 시. 지정학적으로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잇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수도인 자카르타와는 100km 떨어진 철강, 석유화학 등의 인도네시아 공업단지이다. 이 곳에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인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하여 4조원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새로운 기업들이 문을 열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계약직의 단기성 일자리이다. 또한, 지역 노동력의 질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자카르타, 반둥과 같은 외부 대도시 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공단이면서도 지역 내 비경제활동인구는 40% 수준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곳이다. 지역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기업 설립으로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찰레곤시의 고용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KOICA는 POSCO 1%나눔재단과 협력하여 POSCO 인도네시아 제철소의 자회사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다. 동 사업은 2014년 11월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KOICA와 POSCO 1%나눔재단이 각각 7억 원씩 분담하였다. 이 사회적 기업은 제철소로부터 위탁받은 내화물 분리, 제철소 내 녹지조성 및 배수로 청소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 용역업무를 통한 기업의 수익금은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진 : 작업중인 청년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계, 인사 등의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용역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18세~25세의 지역 청년들이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근로자 겸 훈련생으로 채용하여 평일에는 일을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일을 통해서는 임금소득을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6개월간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제철소 유관업무를 체득하고, 인성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업적 격성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 노무직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청년들에게 재취업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들은 인도네시아 POSCO 제철소 협력사 및 현지 기업들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즉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KOICA와 POSCO1%나눔재단이 부여한 것이다.



기업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채용으로 이어져

지난 7월 18일 POSCO 제철소 협력사인 KPMS(Krakatau-Posco Maintenance Service)로 사회적 기업 2기 교육 수료생 5명이 추가로 취업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에 성공한 인원들은 45명으로 취업성공률은 82%이다.

<표> 사회적 기업 수료생 취업 현황

구분	기간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회사
1기 교육	2015년 4월 -9월(6개월)	28	25(89%)	KP 패밀리사 8개
2기 교육	2015년 10월 -2016년 3월	27	20(74%)	KP 패밀리사 4개
계		55	45(82%)	

특히 KPMS는 제철소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로서 인도네시아 찰레곤 지역 진출 초기단계에서 고용했던 지역청년의 인사노무관리에서 어려운 경험을 많았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지역청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육 수료생을 채용하기를 꺼려했지만, 블라인드로 진행된 면접심사에서 4명의 사회적 기업 1기 교육 수료생이 선발되었다. 이렇게 채용된 1기 직원들의 우수한 근무성과 평가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교육 수료생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으며 한번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가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에서 배출한 교육 수료생을 최다로 채용(13명)한 기업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출신 교육생들은 걸음걸이에서부터 다른 지원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물론이고 면접장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등 기본적인 매너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시험에서 사회적 기업 출신 직원이 전체 1등을 하는 등 근무성적도 매우 우수합니다.”

- KPMS 김경배 상무 -

KPMS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출신 교육생들을 채용한 다른 기업에서도 교육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주고 있다. 즉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생들 또한 본인들이 각각 자기마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함으로써 차별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나를 다잡을 수가 있었고 일과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결과 취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우리 마을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 교육 수료생 Hifdi Amrulloh / KPMS 취업 -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지역사회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지역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공모전을 기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어머니 모임을 전문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사진] 시범활동(점심급식)



[사진] 어머니모임 활동설명회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집중 호우로 마을이 침수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한 것도 사회적기업이다.



[사진] 이재민들을 지원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도 수익금의 7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갈 예정이다. 바로 여기에 이 사회적기업의 의의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청년들 뿐 아니라 기업이 토대로 하고 있는 지역의 미래까지도 함께 그리는 것, 사회적기업 하나가 세워짐으로서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 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꿈꾸는 지역의 변화의 시작은 아닐까?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지역사회에는 변화의 씨앗을,

필리핀에 한국의 과학기술 전파! 필리핀 전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글·사진 : 신혜지 인턴기자(홍보실)

코이카는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ODA(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선진 과학기술은 개발도상국의 전 분야에서 발전을 이끄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국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난 7월 13일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부에서는 필리핀 전파관리시스템 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2013년 착수해 약 400만불의 지원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마무리 짓는 자리였다. 이날 사업 수행기관이었던 한국전파진흥협회 측의 사업 전반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 필리핀 전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코이카의 전파관리 분야 최초 ODA이었다는 점이다.

전파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전파는 무선통신, 방송,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고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V, 라디오, 휴대전화 통신뿐만 아니라 의료, 교통, 산업,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활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혼신과 장애로 인해 비행장애, 선박사고 등 갖가지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전파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전파이용의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국가별로 보유 유무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자원과 달리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파자원은 활용에 따라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생시켜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전파 자원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필리핀에 꼭 필요한 전파관리시스템

필리핀은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지형적 특성상 유선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휴대전화 보급률도 약 40%에 그쳤던 2004년에 비해 2010년 기준 90%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파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부실하고 주파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파관리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었다. 전파관리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국민의 전파이용 환경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 부재 환경은 무선국 허가 신청료, 전파사용료 등 정부의 전파관련 세입원 확보와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다. 필리핀 휴대전화 보급 및 사용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파통신 산업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효율적인 전파관리와 신규 주파수 개발이 시급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11년 주파수 관리행정 및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통신위원회인 NTC(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ion)의 전파관리역량 강화 및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우리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이카 필리핀 전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전파관리시스템구축 과정, 그리고 결과

2011년 사업요청서가 접수되면서 코이카는 이듬해 2012년 사전타당성조사를 면밀히 실행했다. 이후 2013년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었고 사업 수행을 맡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NTC 본부 내에 종합모니터링센터가 세워졌다. 종합모니터링센터는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최신 서버 시스템으로 마닐라 내에 설치된 모든 전파감시설비에 대한 강력한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원격지에 설치된 여러 전파감시설비로부터 감시결과가 종합모니터링센터에 자동으로 수집되고 축적됨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고정형과 이동형 두 형태의 전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 고정형 전파관리시스템은 마닐라 내 특정 장소에 설치되는 무인 국소 전파 감시 장비로, 종합모니터링센터의 제어명령을 받아서 전파감시 및 방향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형 전파관리시스템은 저전력 송출, 고정국소 주변 환경에 의한 전파 왜곡, 비정상적인 송출특성 등으로 인해 고정형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전파감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모든 전파감시 및 방향을 탐지한다. 이외에도 이동형 전파감시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건물 내부, 옥상 등)에서 전파송신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휴대형 전파관리시스템 장비도 전달됐다.



또한 전파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NTC의 주파수 인허가 및 전파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전파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파수 인허가정보 통합관리 ▲무선국 검사관리 ▲전파사용료 징수 관리 ▲전파관리현황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 및 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인적 개발도 이루어졌다.

필리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전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전체적인 NTC의 전파관리 역량을 강화시켰다. 불법의심 이동통신 기지국 구분방법 및 신호분석, 증거수집 방안에 대한 실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지 관계자 초청연수도 여러 차례 걸쳐 진행됐다. 한국의 선진 전파관리현황 및 관련 산업체 견학을 통해 향후 필리핀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또한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전파관리시스템은 곧 코이카의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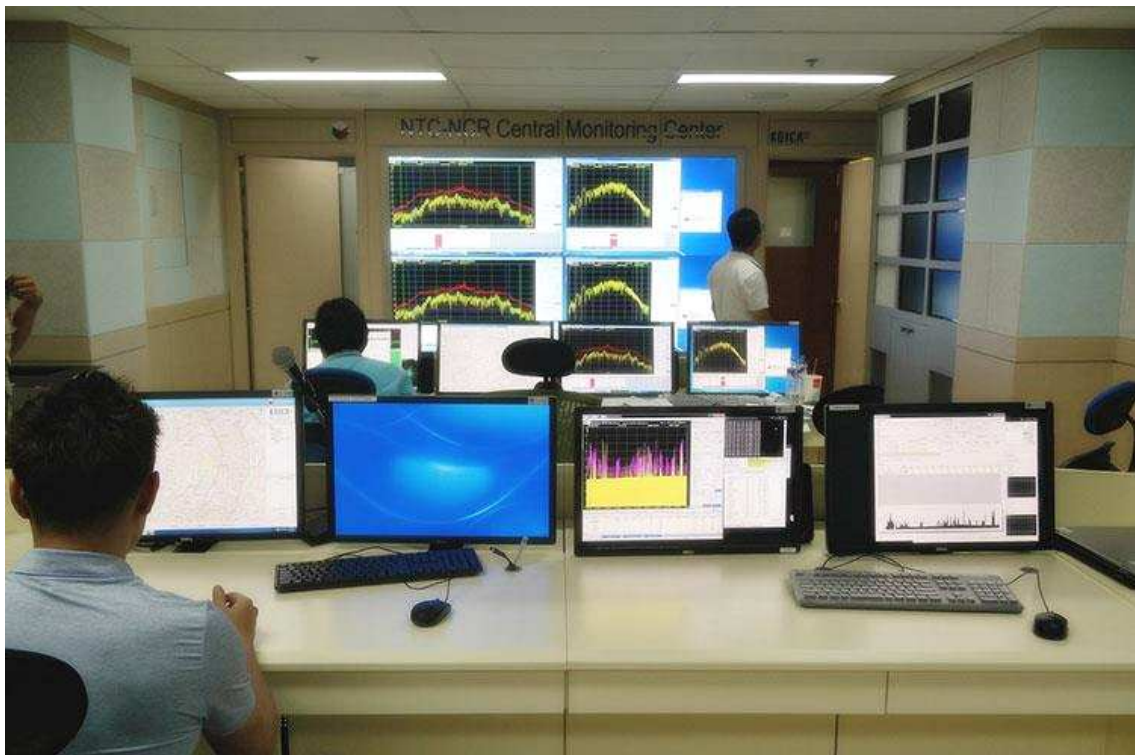
2013년 시작해 2016년 종료된 전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필리핀에서 단순히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사고 예방 등 전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연수사업과 전문가 파견으로 양국 간 돈독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관련 기관의 협력관계도 강화 되었다.

코이카 동남아2팀 이강산 대리는 “필리핀은 우리나라만큼이나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 현재 1억대가 넘는 휴대폰이 등록되어 있을 만큼 전파사용률이 높은 국가이다”며 “이번에 지원된 전파관리기술이 마닐라 인근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 타 대도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도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는 자원이라 이 사업의 변화와 개선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시청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는 등 필리핀 국민의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모든 전파 관련 생활양식에서 코이카의 가치가 함께 흐를 것이다. 전파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앞으로도 필리핀에서, 그리고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전송될 더 강력한 코이카의 전파를 기대해본다.



제목 : 비자 변경 관련 상담

우즈베키스탄

○상담개요

-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근무를 하고 사장님과 다툼으로 인해 퇴사를 함.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근무 하고 퇴사하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자변경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비자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6.06.30. 사업장에서 2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함
- 2016.07.04. 비자 변경 할 때 필요한 서류 알고 싶어서 센터 방문 하였고 근로자에게 비자 변경을 하기 위한 구비 서류와 근로자의 근무기간 EPS 조회를 통해 확인 하면서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됨
- F-4비자 변경을 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지 않고 비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설명해 줌
- 근로자는 2년 근무(24번째)에 대한 급여 받고 2016.07.15.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변경신청을 해보겠다고 함
- 2016.07.15. 근로자는 F-4비자 변경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비자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함

2. 상담포인트

1) 방문취업(H-2) 2년 이상 근속자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지방*소재"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경기도 내에서 "지방"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육아도우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하고 있는 사람

-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체류혜택 부여 세부 기준 적용
- 근속기간 :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CFC 우수상담사례

※ (기산)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일, (근속여부) 고용보험 또는 급여통장 급여 내역

- 근무처 :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체류혜택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 제출서류
 - 여권, 등록증, 수수료, 사진1장
 - 동포입증서류(중국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육아도우미의 경우 고용보험사본, 급여통장 사본
 - 용주 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결핵검진 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육아도우미의 경우 교육 이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가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가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 변경 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구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5.07.05.>

‘2016 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예정(2016.09.11.(일))

2016년 09월 11일 일요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2016 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도망쳐 세상에 온 창원

한가위 FESTIVAL

2016 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 일시 : 2016. 09. 11(일) 11:00~16:30
■ 장소 :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주최 : 창원외국인복지지원센터
후원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부 BNK 경남은행



주요행사 13:00~16:30

1부 개회식

- 개회공연 : 한국전통민속공연 등
- 국기입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개회사 및 축사
- 모범외국인근로자 표창(창원시장 등 5명)
- 축하공연(댄스공연)

2부 2016년 전국 외국인주민 동호회 경연대회 예심

- 경남대표 5팀 선발 / 본선대회 진출 특전(참가상 50만원)
- 예심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08. 16(화) ~ 08. 31(수)
- 신청방법 : 경상남도여성가족정책관실 T. 055)211-2292~4
창원외국인복지지원센터 T. 055) 253-6273

3부 명랑운동회

국가별 대항전 - 풍선기둥세우기 / 줄다리기 / 협동 공튀기기 등

시상식 및 폐회

- 명랑운동회 시상식 / 행운권 추첨 / 폐회 및 축하 이벤트 공연
- 행운권상품 : 노트북, 평면TV, 태블릿PC 등



부대행사 11:00~14:00

한류음식체험 마당 (한가위 음식 체험)

- 운영 시간 : 11:30~13:00

상담 서비스

-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외국인근로자 보호대책반 운영)
- 창원고용노동지청(고용채류 안내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 BNK경남은행(환전·송금 상담)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체류·귀국 통합 서비스 등)



사랑의 무료진료 서비스

- 창원병원(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
- 마산대학교의료봉사단(시력검사, 물리치료 등)
- 마산보건소(결핵검사, 에이즈예방 등)
- 대한결핵협회(X-Ray 검사)
- 힐링닥터스봉사단(한방의료진료, 침, 뜸 등)



뷰티짱 서비스

- 경남불사미화 이마용서비스
- 창신대학교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한국전통의상 포토존

- 다양한 한국전통의상을 체험하고 즉석에서 사진 촬영



한국전통 민속놀이 체험마당

- 윷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팔씨름, 줄넘기, 팽이치기 등 한국전통 문화를 체험, 우승자 기념품 배부



한국전통 다과 체험 마당

- 한국 전통다과 전통엿, 인절미, 송편, 식혜 등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림



아나바다 다문화 풍물장터

-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현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다문화 풍물장터 운영



서울버스 운행

차량 안내 : ☎ 055-253-5270~4 ☎ 070-4481-6701~6

서울버스 운행 안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량	출발지	출발 시간	경로	행사장 출발시간	비고
1호 차량	칠현 에이스아파트	10:00	외국인침실지역	16:00	일북
2호 차량	진해 오리엔탈정원	10:00	외국인침실지역	16:00	
3호 차량	진동 (주)진화	10:00	상원화원복지위원회	16:00	

※ 차량 지원수와 시간은 신청 커뮤니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버스노선

간선 : 100, 105, 116, 160

지선 : 250, 259, 265, 266, 29, 46, 49, 52, 529, 53, 80



행사장 : 마산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종합운동장)

행사장안내 055) 712-054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연맹공단 경남지사

 CHANGW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문의 055) 253-5270~4 070-4481-6701~6



행사 일정

| 일 시 | 2016년 9월 11일(일) 11:00 ~ 16:30

| 장 소 |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시 간	내 용
11:00~11:30	• 등록 : 국가별 인원 확인 등 • 등록장소 : 행사장 입구
부대행사	
11:00~14:00	• 목리충진체험마당 : 상담, 의료, 환경, 뷰티서비스 등 • 한국전통 민속놀이체험마당 : 윷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팼씨름, 줄넘기, 맷이치기 등 • 전통의상 포토존 : 한복 등 전통의상 즉석사진촬영 • 전통다과 체험마당 : 전통떡, 인절미, 송편, 식혜 등 • 아니바다 다문화 집터 :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꽃들을 현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불꽃장터
점심식사	
11:30~13:00	• 한류 음식 체험마당
제1부 : 개회식	
13:00~13:30	• 개회 공연 • 국기 입장 및 개회선언 • 국민인례, 내빈소개 • 개회사 및 축사 • 모범 외국인근로자 시상(5명) • 축하 공연(민속공연) 등
제2부 : 2016년 전국 외국인주민 동교회 경연대회 예심	
13:30~14:10	• 외국인주민 동교회 경연대회 예심 - 8팀(팀당 5분 정도 공연) - 경남 대표 5팀선발 본선대회 진출 특전
제3부 : 영랑운동회	
14:10~16:10	• 영랑운동회(국가별 대항전) - 풍선기둥세우기, 줄다리기, 협동 굴 튀기기
16:10~16:30	• 영랑운동회 시상식(국가별 채점에 의한 시상) • 행운권 추첨 • 축하 이벤트 공연

* 당일 행사일정은 변경 될수 있음

CFC 9월 행사 안내

첫째주	◆2016 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유관기관 방문	◆토요야간상담(18:00~21:00)-센터상담실 ◆토요 특별한국어교실(19:00~21:00)-101호, 102호
둘째주	◆귀국예정자 취·창업훈련과정 제과제빵 직종 개강(10:00~17:00)-경남요리학원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5:00~17:00) ◆2016 노래교실 "SING SING CLUB" 실시(15:00~17:00)-다목적홀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00~18:00)-사천 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주사랑의집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8월 실적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바다무지개 소식지 9월호 발간 ◆상담원직무강화교육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방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11:00~)-창원시청 2별관 2회의실 ◆WEDUDAY(15:00~17:00) ◆토요야간상담(18:00~21:00)-센터상담실 ◆토요 특별한국어교실(19:00~21:00)-101호, 102호
셋째주	◆2016년 창원시 외국인근로자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11:00~16:30)-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통영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상담원직무강화교육 ◆창원고용노동지청방문상담(09:30~17:00) ◆토요야간상담(18:00~21:00)-센터상담실 ◆토요 특별한국어교실(19:00~21:00)-101호, 102호
넷째주	◆2016 운전면허교실 응시원서 접수(10:00~16:00)-상담실 및 다목적홀 ◆TOPIK 3급 2차 자격취득반 수료식(13:00~17:00)-거제 옥포연수원(CFC 옥포캠퍼스)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15:00~18:00)-사천 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진주사랑의집 ◆3차 산업안전교육(자체교육)(오전반, 오후반)-각 한국어교실 ◆2016 노래교실 'SING SING CLUB' 실시(15:00~17:00)-다목적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진주고용노동지청 이동상담(09:30~17:00) ◆2016 운전면허교실 응시원서 제출(11:00~12:00)-마산 진동운전면허시험장 ◆제 49회 TOPIK시험 접수(8/19~8/28)-교육문화팀 ◆상담원직무강화교육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0:00~14:00) ◆2016 운전면허교실 필기시험 실시(10:00~15:00)-마산 진동운전면허시험장 ◆HCC사전교육(16:00~17:00)-다목적홀 ◆토요야간상담(18:00~21:00)-센터상담실 ◆토요 특별한국어교실(19:00~21:00)-101호, 102호
다섯째주	◆제4차 무료법률 상담서비스(13:00~15:00)-상담실(또는 3층 이노카페) ◆제3차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환경정화활동실적(15:00~17:00)-장군천 일대 지역정화활동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상담(09:30~17:00)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상담(09:30~17:00) ◆9월 센터업무 마무리

CFC와 함께해요😊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